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 젊은층은 주거불안, 고령층은 소득불안

# 목 차

## ■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 젊은층은 주거불안, 고령층은 소득불안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싱글족(1인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	3
3.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	5
4. 시사점 .....	11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본부       :    김    광    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 ■ 개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1인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5.6%)에서 2015년 506만 가구(26.5%)로 급증하였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3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1인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를 차지하는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10.9%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소득-지출 구조, 고용 구조 및 주거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경제적 특성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 ■ 싱글족(1인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첫째**,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현재 34.0%로 가장 높고, 20대(16.9%), 30대(17.3%), 40대(14.5%), 50대(16.1%)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둘째**, 미혼 및 이혼으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미혼 1인가구는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하였고, 이혼 1인가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9.8% 증가하였다. **셋째**,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중 여성의 비중이 2010년 66.1%에서 2014년 69.0%로 상승하였고, 남성의 비중은 33.9%에서 31.0%로 하락하였다. **넷째**, 여성 1인가구의 증가세가 20·3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1인가구 중 여성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20·30대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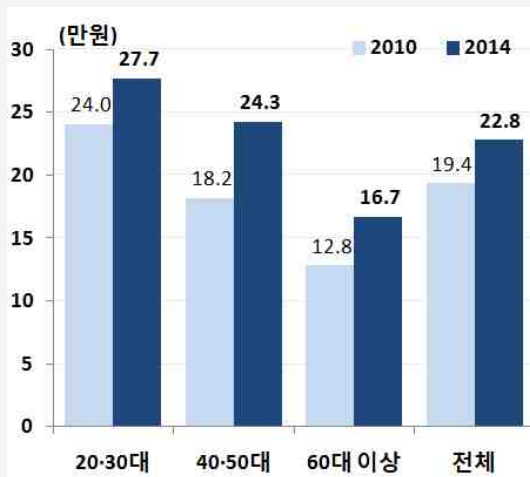
**(1인가구의 소득-지출 구조) 60대 이상 1인가구는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성향이 축소되고 있다.** 전체 1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상승하였으나 60대 이상 1인가구는 하락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소득 증가폭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크지만, 60대 이상 1인가구는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이 축소되었다. 60대 이상 1인가구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이유는 경기침체 지속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미래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불확실하여 비록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경직적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60대 이상 1인가구는 엔겔계수(식료품 지출 비중)와 슈바베계수(주거비 지출**

비중)가 가장 높고,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즉, 가처분소득이 작아 필수 재적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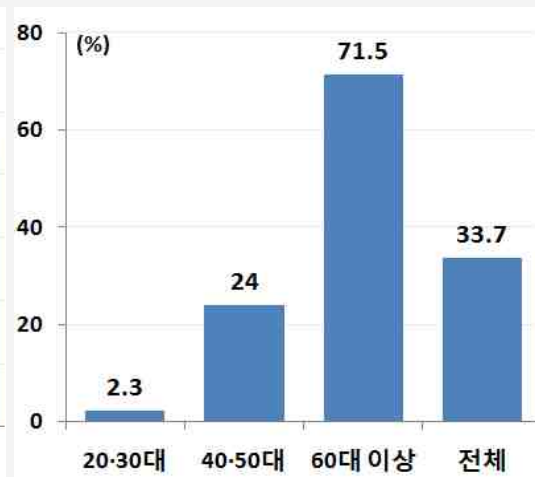
**(1인가구의 고용 구조) 60대 이상 1인가구의 근로안정성이 가장 취약하다.**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다른 연령대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비중이 현격히 낮다. 취업한 경우에도,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근로안정성에서 다른 연령대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다. 한편, 20·30대 1인가구는 전문직·사무직에,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단순노무직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다.

**(1인가구의 주거 조건)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세 의존도가 현저히 높고, 특히 20·30대 1인가구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1인가구의 주택소유비중은 52.0%로, 2인 이상 가구 71.8%를 크게 하회한다. 특히 20·30대 1인가구는 주택소유비중은 23.8%로 가장 낮다. 20·30대 1인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고 있고, 월세임차료 지출 규모도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

< 월세 1인가구의 월 임차료 >



< 1인가구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



■ 시사점

첫째,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층 1인가구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취업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주거불안이 높은 20·30대 1인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측면에서도 1인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1. 개요

○ (연구배경) 1인가구가 급증하고, 저소득층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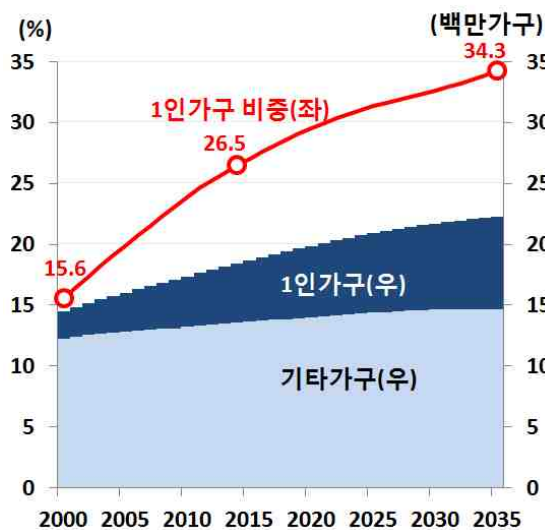
- 1인가구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 1인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5년 506만 가구로 급증하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5.6%에서 2015년 26.5%로 상승해 왔고, 2035년에는 34.3%를 차지할 전망

- 1인가구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2~3인가구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4인 이상 가구는 감소

- 2000~2035년 동안 1인가구는 연평균 3.5%로 증가하고, 2인 및 3인가구는 각각 2.9%, 1.0%로 증가
- 같은 기간 4인 이상 가구는 뚜렷하게 감소할 것임

< 1인가구 비중 추이 >



<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이 >

가구원수	가구 수 추이 (백만가구, %)			
	2000	2015	2035	연평균 증감률
1인	2.3	5.1	7.6	3.5
2인	2.8	5.0	7.6	2.9
3인	3.0	4.0	4.3	1.0
4인	4.5	3.5	2.2	-2.0
5인	1.5	0.9	0.4	-3.5
6인	0.5	0.3	0.1	-3.9
이상				
전체	14.5	18.7	22.3	1.2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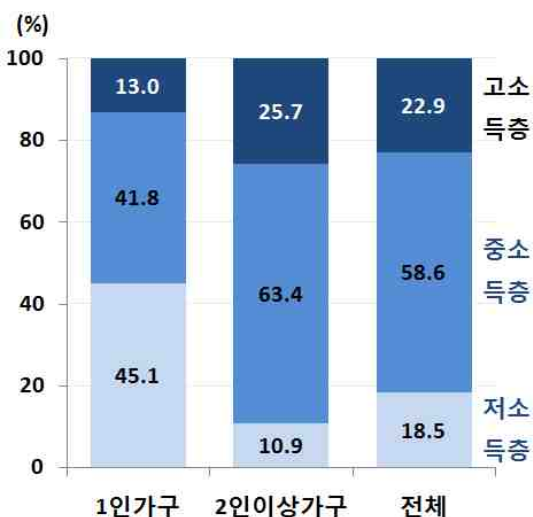
- 주 : 1) 1인가구 비중은 총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2) 2000~203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감률임.

##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고, 중·고소득층의 비중은 낮게 분포
    - 1인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를 차지하는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10.9%에 불과함
    - 중·고소득층의 비중은 1인가구가 각각 41.8%, 13.0% 인데 반해, 2인 이상 가구는 각각 63.4%, 25.7%로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독거노인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
    - 20·30대와 40·50대 1인가구는 중소득층 비중이 각각 55.6%, 55.3%로 과반을 이룬 반면, 60대 이상 1인가구는 저소득층 비중이 66.7%에 달함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1.0%를 크게 상회
    - 한국의 경우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되는 경향이 나타남<sup>1)</sup>
- (연구목적)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소득·지출 구조, 고용 구조 및 주거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가구유형별 소득계층 비중(2014) >

< 연령별 · 가구유형별 소득계층 비중(2014)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인 가구	저소득층	17.2	21.9	66.7
	중소득층	55.6	55.3	30.1
	고소득층	27.2	22.9	3.2
2인 이상 가구	저소득층	4.6	5.5	30.7
	중소득층	73.2	62.6	55.6
	고소득층	22.2	31.9	13.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주 :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 분류. 저소득층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소득층은 50%이상 150% 미만, 고소득층은 150% 이상을 의미(OECD 및 한국 통계청 기준과 동일).

1) 현대경제연구원(2014.10),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현안과과제 14-41호.

## 2. 싱글족(1인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 ○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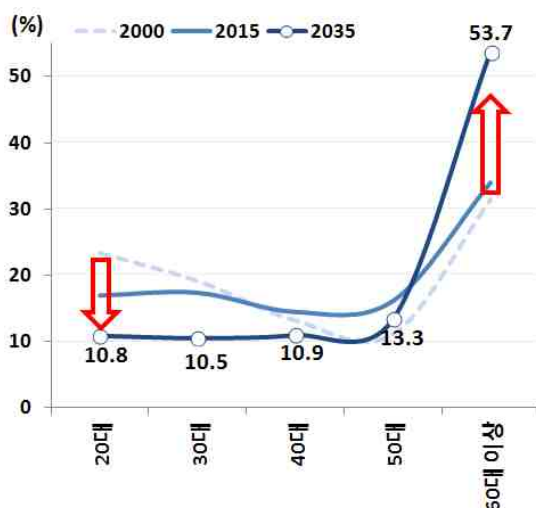
#### - (연령별) 60대 이상의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1인가구 증가

- 1인가구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현재 34.0%로 가장 높고, 20대(16.9%), 30대(17.3%), 40대(14.5%), 50대(16.1%)는 이에 크게 못 미침
-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31.3%→2015년 34.0%→2035년 53.7%로 상승하고, 20대는 같은 기간 23.3%→16.9%→10.6%로 하락할 전망
-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혼인상태별) 미혼 및 이혼으로 1인가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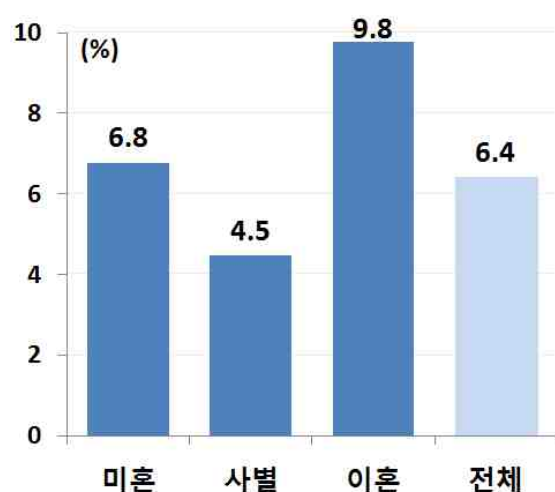
- 미혼 1인가구는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하였고, 이혼 1인가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9.8% 증가
- 평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미혼의 1인가구가 증가하였고, 사별 및 이혼에 따른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 >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 혼인상태별 1인가구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 2000~201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임.

○ 여성 1인가구 증가하고, 특히 20·30대 1인가구내 여성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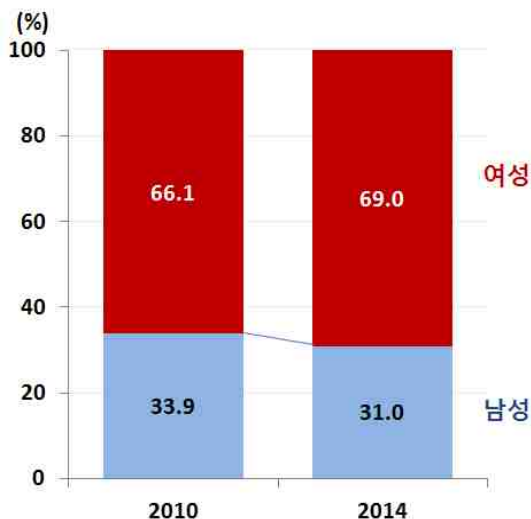
- (성별) 여성을 중심으로 1인가구 증가

- 1인가구 중 여성의 비중이 2010년 66.1%에서 2014년 69.0%로 상승하였고, 남성의 비중은 33.9%에서 31.0%로 하락
- 미혼 및 이혼 등의 원인으로 여성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상승<sup>2)</sup>하였고, 저출산·이혼증가의 시대적 현상과 맞물려 여성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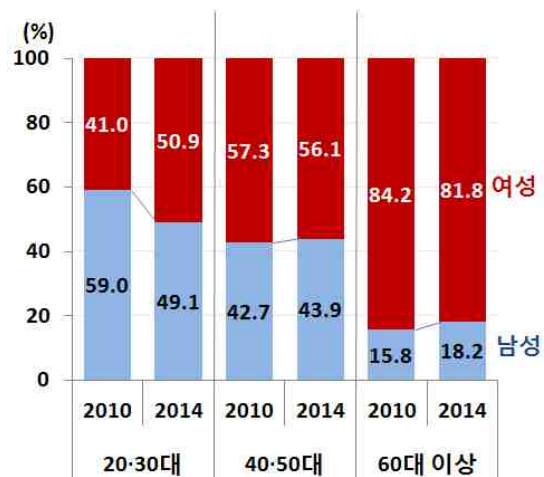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특히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1인가구 증가

- 고연령화 될수록 각 연령대별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그러나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1인가구 중 여성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20·30대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 즉, 여성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1인가구의 성별 분포 >



< 연령대별 1인가구의 성별 분포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2)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14년 29.8세로 상승하였고,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000년 29.3세에서 2014년 32.4세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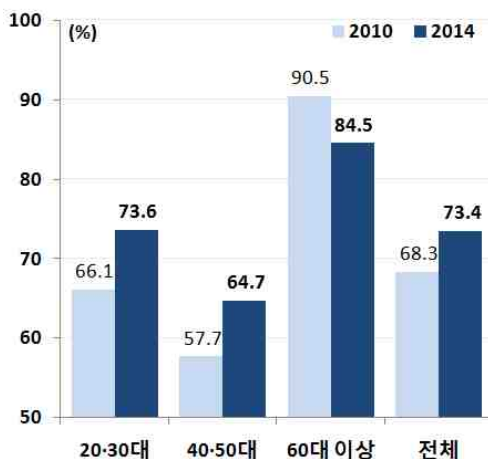
### 3.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 (1) 싱글족(1인가구)의 소득-지출 구조

○ 60대 이상 1인가구는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성향 축소

- (평균소비성향) 전체 1인가구의 소비성향은 상승하나 60대 이상 1인가구는 하락
  - 2010~2014년 동안 20·30대는 66.1%→73.6%, 40·50대는 57.7%→64.7%로 평균 소비성향이 상승한데 반해, 60대 이상 1인가구는 90.5%→84.5%로 하락
  - 다른 연령대의 경우 소득 증가폭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크지만, 60대 이상 1인가구는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아 평균소비성향 축소
  - 60대 이상 1인가구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이유는 경기침체 지속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미래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경직적으로 지출
- (소득-지출) 20·30대 및 40·50대 1인가구에 비하여 60대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현저히 작고 소비 증가폭이 가장 작음
  - 60대 이상 1인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84만원으로, 20·30대 193만원, 40·50대 201만원보다 현저히 작음<sup>3)</sup>
  - 60대 이상 1인가구의 소득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립성이 떨어지고 필수재적 품목 이외의 소비활동이 어려워 삶의 질 하락으로도 연결됨

< 1인가구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



< 1인가구 월 소득-지출 구조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인가구 전체
가처분소득	2010	187.0	180.1	68.4	130.1
	2014	192.7	201.1	83.9	136.7
	증감	5.6	21.0	15.4	6.6
소비지출액	2010	123.7	103.9	61.9	88.8
	2014	141.9	130.2	70.9	100.4
	증감	18.2	26.3	9.0	11.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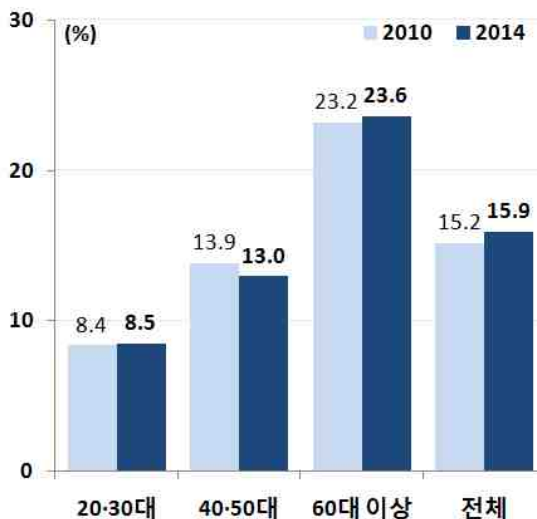
주 :  $\text{평균소비성향} = \frac{\text{소비지출액}}{\text{가처분소득}}$

3)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가 603,403원임(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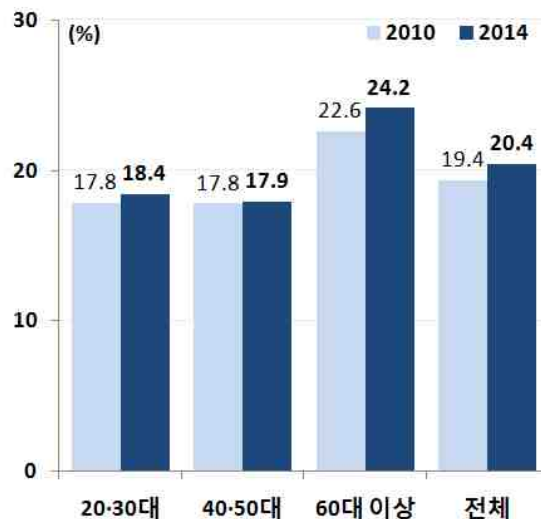
○ 60대 이상 1인가구는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고,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

- (식료품 지출) 60대 이상 1인가구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 지출 비중(엔겔계수)이 20·30대 및 40·50대 1인가구보다 높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름
  - 60대 이상 1인가구의 엔겔계수는 2010~2014년 동안 23.2%→23.6%로 상승한 반면, 40·50대는 오히려 하락하였고, 20·30대도 소폭 상승에 그침
  - 1인가구 전체의 엔겔계수는 2010~2014년 동안 15.2%→15.9%로 상승한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13.9%→13.8%로 오히려 하락
  
- (주거비 지출) 60대 이상 1인가구는 소비지출액 중 주거비 지출 비중(슈바베계수)이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높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2014년 60대 이상 1인가구의 슈바베계수는 24.2%로 2010년 이후 1.6%p 상승하였고, 20·30대와 40·50대 1인가구의 상승폭을 크게 초과
  - 1인가구 전체의 슈바베계수는 2010~2014년 동안 1.0%p 상승한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0.3%p 상승에 그침
  - 독거노인 가구는 필수재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 식료품 가격 및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크고,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할 것으로 판단됨

< 1인가구의 연령별 엔겔계수 >



< 1인가구의 연령별 슈바베계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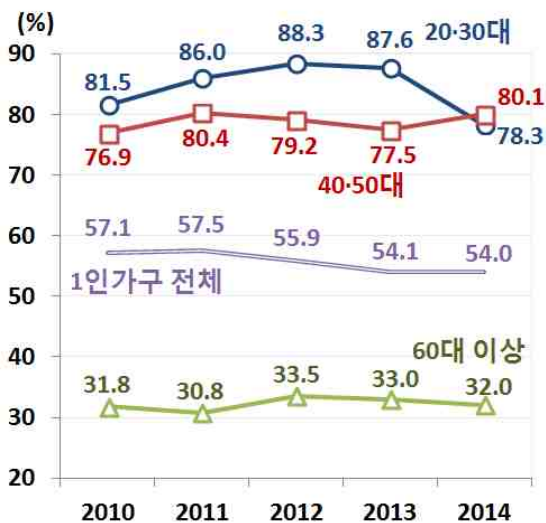
주 : 엔겔계수 =  $\frac{\text{식료품 소비지출액}}{\text{총 소비지출액}}$ , 슈바베계수 =  $\frac{\text{주거관련 소비지출액}}{\text{총 소비지출액}}$ .

(2) 싱글족(1인가구)의 고용 구조

○ 60대 이상 1인가구의 근로안정성 가장 취약

- (취업비중)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다른 연령대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비중이 현격히 낮음
  - 60대 이상 1인가구의 취업비중은 2014년 32.0%로 과반수가 비취업 상황
  - 20·30대 1인가구의 취업비중은 개선되어 왔으나 201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4년 78.3% 기록
  - 반면, 40·50대 1인가구의 취업비중은 2010년 76.9%에서 2014년 80.1%로 개선
- (종사상지위) 취업한 경우에도,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근로안정성에서 다른 연령대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음
  - 60대 이상 1인가구는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인 자영자<sup>4)</sup> 비중이 높음
  - 반면, 20·30대 1인가구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40·50대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영업자인 고용주 비중이 높음

< 1인가구의 연령별 취업비중 추이 >



< 1인가구의 연령별 종사상지위(2014) > (%)

		1인가구 전체			
		20·30	40·50	60이상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39.1	65.7	42.7	13.7
	임시·일용근로자	40.0	17.8	33.2	66.0
자영업자	고용주	2.9	1.9	5.2	0.8
	자영자	18.0	14.6	18.8	19.6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4)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등으로 구분된다.

##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 20·30대 1인가구는 전문직·사무직에,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단순노무직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분포
- 20·30대 1인가구는 전문직·사무직 종사자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분포
  - 20·30대 1인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34.5%, 사무 종사자 비중이 32.3%로 20·30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은 비중으로 분포
  - 1인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33.7%)이 2인 이상 가구(10.7%)보다 매우 높게 분포하지만, 20·30대인 경우 오히려 낮음
-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분포
  -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71.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60대 이상 2인가구의 34.5%를 크게 초과
  - 40·50대 1인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도 24.0%로, 40·50대 2인 이상 가구의 7.7%를 초과
  - 1인가구는 연령대별로 근로조건 및 근로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혀 상이한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 가구유형별 · 연령대별 직업분포 분포(2014) >

(%)

구분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20·30대	40·50대	60이상		20·30대	40·50대	60이상
관리자	0.5	0.2	1.0	0.0	2.0	0.8	2.8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3	<b>34.5</b>	14.1	1.9	20.4	28.5	20.2	8.0
사무 종사자	12.7	<b>32.3</b>	9.2	1.9	16.7	25.3	15.9	5.7
서비스 종사자	11.5	7.4	16.2	8.4	7.5	5.7	8.3	7.3
판매 종사자	7.9	8.5	7.7	7.6	10.5	11.5	9.9	11.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0	0.1	0.0	0.1	0.3	0.0	0.4	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1	5.4	13.3	3.3	13.3	10.0	14.7	13.1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10.2	9.0	14.4	5.4	18.2	13.9	19.8	19.3
단순노무 종사자	33.7	2.3	<b>24.0</b>	<b>71.5</b>	10.7	3.9	7.7	34.5
직업군인	0.1	0.4	0.0	0.0	0.3	0.4	0.3	0.0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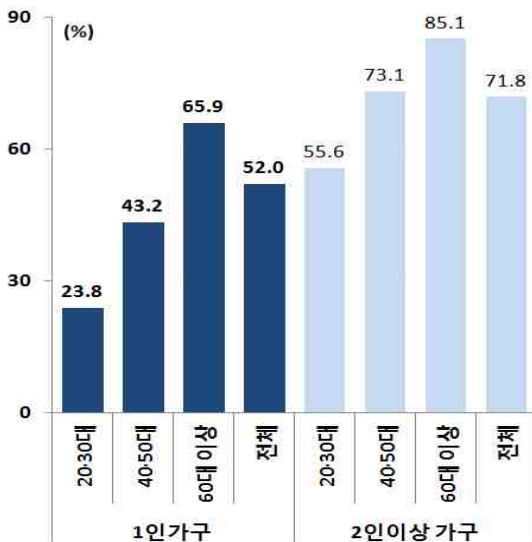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주 : 비취업자를 제외하였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의 직업을 기준으로 함.

(3) 싱글족(1인가구)의 주거 조건

-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세 의존도가 현저히 높고, 특히 20·30대 1인가구의 주거불안이 심각
  - (주택소유)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주택소유비중이 낮고, 특히 20·30대가 가장 낮음
    - 1인가구의 주택소유비중은 52.0%로, 2인 이상 가구 71.8%를 크게 하회
    - 특히 20·30대 1인가구는 주택소유비중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에 비해 주거불안 수준이 높음
    - 1인가구는 주택소유비중이 낮아 주거안정대책의 중점 대상이 될 수 있고, 향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층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입주형태)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보다 월세의존도가 높고, 특히 20·30대의 주거불안이 가장 심각한 상황
    - 1인가구의 자가거주 비중은 48.8%로, 2인 이상 가구의 67.4%보다 낮음
    - 반면, 1인가구의 월세 거주 비중은 23.5%로 2인 이상 가구(10.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특히, 20·30대의 전월세 의존도가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가구유형별 주택소유비중(2014) >



< 가구유형별 입주형태(2014) >

	1인가구 전체 (%)				2인 이상 가구 (%)
	20·30	40·50	60이상	전체	
자가	48.8	23.1	37.3	63.3	67.4
무상주택	8.2	7.9	5.2	9.9	2.9
사택	0.6	0.6	1.6	0.0	0.6
전세	16.8	31.4	17.9	11.4	16.7
영구임대	2.2	0.3	4.7	1.5	1.6
월세	23.5	36.7	33.3	13.9	10.9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 전월세 보증금 및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20·30대 1인가구에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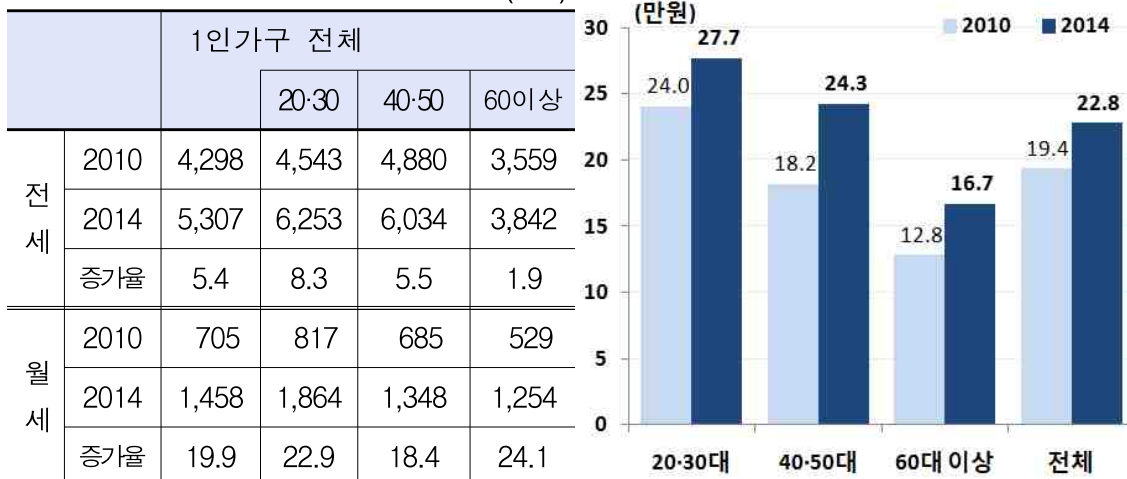
- (전월세 보증금) 20·30대 1인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됨

- 20·30대 1인가구의 전세 보증금은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8.3% 증가해 40·50대 및 60대 이상 1인가구보다 부담이 더욱 가중
- 20·30대 1인가구의 전세 보증금은 2014년 6,253만원 수준으로 40·50대 1인가구를 추월
- 20·30대 1인가구의 월세 보증금 규모도 가장 크고, 증가세도 빠른 편임
- 20·30대 1인가구는 주로 도심에 전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60대 이상 1인가구는 비도심에 거주하기 때문에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보증금 가격이 상승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sup>5)</sup>

- (월세 임차료) 20·30대 1인가구의 임차료 지출 규모도 다른 연령대보다 큼

- 월세 거주하는 20·30대 1인가구의 임차료는 2014년 월평균 28만원으로, 40·50대(24만원) 및 60대 이상(17만원) 보다 큰 상황
- 전세공급 부족 현상으로, 임차 1인가구가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료 지출 증가에 따른 주거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전월세 1인가구의 보증금 추이 > < 월세 1인가구의 월 임차료 추이 >  
(만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추계.

주 : 증가율은 2010~2014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임.

5) 20·30대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도심형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경향이 높고, 고연령화 될수록 그 비중이 낮아져 전월세 임대료 증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4. 시사점

첫째,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인구증가폭이 둔화되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대응은 부족
-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족 정책을 제고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필요
- 특히,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20·30대 여성 1인가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구
- 사회참여율이 낮은 1인가구의 경우 가족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참여활동을 영유할 기회 제공

둘째, 고령층 1인가구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취업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

- 60대 이상 1인가구는 취업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및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립성이 떨어지는 상황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일자리 등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유도 및 소득여건을 개선
- 재취업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의 질적개선을 통해 60대 이상 1인가구가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독일 등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진국 사례를 적용하여, 퇴직 고령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컨설팅, 시니어 인턴제, 고령층 연수제도 등을 활성화 할 필요

셋째, 주거불안이 높은 20·30대 1인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0·30대 1인가구는 자가 보유 비중이 낮고, 월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 부담 및 임대료 지출 비용 증가에 따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대형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여 20·30대 1인가구에 맞춰진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 주거불안의 주요한 대상인 20·30대 1인가구의 여건에 맞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
  - 최근 정부는 젊은 세대(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을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sup>6)</sup>

넷째, 산업측면에서도 1인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기업들은 늘어나는 1인가구 추세에 맞게, 소량 상품, 소형가전, 소형가구, 1인 전문 인테리어 등 적극적인 제품 개발
- 재무설계 관리, 건강관리, 생활도우미 지원 등의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외식업계도 배달서비스나 1인용 전용좌석 등의 1인가구 맞춤형 소비환경을 마련할 필요
-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보안·치안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도 확대 **HRI**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6) 현대경제연구원(2015.4),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현안과과제 15-11호.